

한라포커스 ADPi 하도급 보고서 무일 담았나

##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 부적절”

‘기존 활주로 최적화 방안’ 단기 확충안 반영  
‘평행 활주로 신설’ 시 마을철거 등 비용 과다  
‘교차 활주로 운영’은 관제 안전 우려 제기돼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시스템-트래픽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대체 시나리오 준비에 대한 기술 지원’ 용역 보고서(이하 ADPi 보고서)의 베일이 벗겨졌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의뢰하고 (주)유신이 수행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하도급 용역으로, 제주공항 인프라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1억여원을 투입했음에도 용역에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은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원문이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국제공항 확충 방안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도두마을 일

부 철거와 도두봉 일부 절토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대 컨소시엄 용역진은 지난 10일 ADPi 원문 보고서와 임장문을 공개했다.

ADPi 용역 보고서에는 제주공항 확충 관련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1안은 ‘기존 활주로 최적화 방안’, 2안은 ‘평행 활주로 신설’, 3안은 ‘교차 활주로 공동 운영’ 등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에 따르면 1안은 현 제주공항의 주요 활주로에 고속 탈출 유도로 확충, 항공기 대기공간 신설, 관제신기술 도입, 관제사 증원 등을 통해 시간당 활주로 용량을 개선하는 안이 담겼다.

2안은 현 제주공항 주활주로(3180m)에 평행한 방향으로 2100m 이격 근접평행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380m 이격과 중간 유도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3안은 모든 항공기 교차활주로(동서·남북)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국토부와 용역진은 1안을 일부 수정해 ‘제주공항인프라 단기 확충방안’에 반영했다.

다만 2안에 대해서는 공항개발중 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권고한 용량을 참고하면 수요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3안은 교차활주로의 용량으로 수요 처리가 어렵고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 동선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 관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ADPi 보고서에는 2안을 도입할 경우 새로운 활주로 설치하면 시간당 운항횟수를 최대 60회 늘릴 수 있지만, 도두봉(68m)을 잘라내기 위한 간척 작업과 도두마을 일부가 철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경우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여객 수요 한계 지점은 1안을 도입시 2020년, 2·3안은 2035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생애 첫 PGA 우승 강성훈 12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막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정상에 오른 강성훈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아내 양소영, 아들 유진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의 아들’ 강성훈 PGA 첫 우승

PGA 데뷔 8년만에 결실… 한국선수론 6번째  
내년 챔피언십·마스터스 출전권… 랭킹 75위

‘제주의 아들’ 강성훈(32·CJ대한통운)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무려 158전 159기로 얻어낸 결실로 제주인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다. >>>관련기사 11면

강성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파71·7558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79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4라운드(65·61·68·67) 최종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한 강성훈은 공동 2위인 맷 에브리(미국)와 스콧 피어시(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강성훈의 이번 우승은 한국국적 선수로서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김시우(24) 이후 2년 만이다. 강성훈은 최경주(49·8승), 양용은(47·2승), 배상문(33·2승), 노승열(28·1승), 김시우(2승)를 이어 PGA

투어 무대 정상을 밟은 6번째 한국인이다. 제주출신으로서는 양용은에 이어 두 번째다. 우승 상금은 142만 2000달러(약 16억7000만원)다.

강성훈은 이날 27라운드를 소화했다. 전날 낫은 날씨로 9개 홀 이후 경기가 순연됐기 때문이다. 3언더파 68타로 3라운드를 마친 강성훈은 마지

막 4라운드에서 여러 차례 공동선두를 유지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보이며 14~16번 3개 홀에서의 버디행진으로 막판 승기를 잡았다. 15번 홀에서의 7m 버디가 결정타로 에버리의 나홀 간의 접전을 승리로 마쳤다.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도 75위로 63계단이나 경추 뛰어올랐다.

강성훈은 이 우승으로 2020~2021 시즌 PGA 투어 카드를 획득했고, 내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마스터스 출전권도 따냈다.

백금락기자

## 내년 1월부터 무허가 축사 강제 철거 농가 17%만이 적법화 완료… 도, 강력 제재키로

제주도내 무허가 축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축사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행정시, 농·축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계기관·부서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는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적법화 이행기간인 오는

12월 27일까지 시행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시·도농정 국장 긴급 현안회의를 통해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사항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력 제재를 권고했다.

현재 제주도내 적법화 추진 실적은 전국대비 저조한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상농가 216곳 중 적법화 완료 농

가는 37곳(17.1%)에 불과하다. 전국 이행률 20.2%(4월말 기준)보다 2.9%p가 낮은 수치다.

인·허가를 접수하거나 설계도면을 작성 중인 농가는 86곳(39.8%)이며, 관망하거나 폐업 예정인 농가는 32곳(14.8%)에 이른다.

부진 사유를 보면 >소규모·고령 농가의 비용부담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 >위반유형의 다수 중복 >축량·설계·국공유지 매각 등의 절차 지연 등이 꼽힌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지역 사유제한지역 확대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알림**

**뉴스를 활용한 인성교육**

### “학교를 찾아가입니다”

▶사업명: 2019 뉴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사업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7곳  
▶사업형태: 특강·NIE 체험 (1곳당 2학급(또는 동아리), 각 연속 2시간)  
▶사업기간: 2019년 5월 27일~12월 13일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5월 24일(금)까지 선착순  
한라일보 홈페이지(http://www.ihalla.com) 좌측 배너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ejoh@ihalla.com)로 전송  
▶문의: 010-2024-5692(NIE 담당 기자)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내농장·우리마을  
아름답게 가꾸기

제주특별 농약·비료  
바르게 사용하기

세계 농업유산  
「제주밭담」 유지·보존

농촌환경 파수꾼  
「제주농촌지킴이」 활동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사)도민 운동 전개

제주농협이  
청정제주농촌가꾸기운동을  
시작합니다

제주농협 직원 홍보모델

**제주농협**